서북청년단 성명서 (제 2023-11 호)	☐ 제공일 : 2023.10.06 ☐ 보도요망일 : 2023.10.06 이후 ☐ 면 수 : 총 2 면 ☐ 첨 부 : 1 면 (총회안내자료)
	☐ 총재 : 김관국(호림부대유족회장) ☐ 단장 : 한창권 010-5335-8587 ☐ 자료문의 : 사무총장 정 함 철 HP. 010-4379-105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149번길 18, 가동 306호 (일산동) / 전화 (033)766-3929
팩스 (033)735-3928 / 웹사이트 : www.서북청년단.com / E-mail : ham9322@hanmail.net

대한민국 건국의 밀알이 되신 서북청년단의 정통성을 이을 탈북민을 집단폭행한 민주당원에게 경고하며, 빌미를 제공한 박영순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정신을 회복하고 일신하라!

경찰당국은 집단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죄하라!

지난 9월 21일, 이곳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탈북민 동지들에게 일명 개딸이라 불리는 무리들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에 소개된 이 집단폭력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경비하던 십 수 명의 경찰관들이 집단폭력 현행범들을 현장체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수방관한 실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소수의 탈북민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몰려와 "북한거지, 북한쓰레기, 북한병신" 등의 반인권적인 모욕과 폭언, 집단폭행을 일삼았던 자들은 다름 아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이재명 지지자들이었음에 분노하며, 이재명 대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반인권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자는, 지난 9월 6일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을 향한 합당한 비판발언에, 공개적으로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등의 막말을 일삼았던 대전시 대덕구 박영순 의원이며, 박영순 의원은 대국민 사과와 태영호 의원을 직접 만나 사과할 것을 10월 15일까지 요구하며, 이에 불응 시 서북청년단의 이름으로 박영순 의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정신을 회복하든가, 아니면 위선의 탈을 벗어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소개-우리의 발자취)하면 창당의 주역으로 신익희, 조병옥, 장면 박사를 내세우고 있다.

이 중 독립운동가이자 제5대 내무부장관까지 지내신 조병옥 박사는 해방 직후 미군정하의 초대 경무부장을 지내며, 당시 공산주의의 추악한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자유를 찾아 대거 월남한 서북청년들을 보듬었으며, 남한에서 UN승인하의 대한민국 건국을 폭력으로 방해하던 공산주의 세력들과의 건국 전쟁에 기꺼이 서북청년단(회) 선배님들을 최전선에 내세우고 활동자금까지 지원하셨던 분이다.

이런 반공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선구자이셨던 조병옥 박사님을 더불어민주당 역사의 주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정당이 현재 국민 앞에 보이고 있는 반민주적 비도덕적인 추태는 가히 어찌 설명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창당 정신을 회복할 의지가 없다면, 위선을 벗고 민족의 배신자인 김일성 3대 세습 체제에 추종하는 가짜 민주정당으로 타락했음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민심의 심판을 받아라!

<구호>

1. 백주대낮에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은 경찰당국을 **규탄한다!**
2. 이 사건 관할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집단폭력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엄정히 수사하고 의법 **처벌하라!**
3.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대전시 대덕구 출신 박영순 의원은 대국민 **사죄하라!**
4.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인권 폭언과 집단폭력 사태에 이재명 대표가 대신 **사죄하라!**
5.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정신을 회복하던가, 아니면 민주정당의 당명을 **내려라!**

2023. 10. 06.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

서북청년단

SINCE 1946.11.30. RESTART 2014.11.28.

서북청년단 전국조직 총회 안내 보도자료

암울했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은 중단하자!
"잊혀진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명언은 귀가 따갑도록 대다수 국민들이 되새기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의 미래는 정녕 어떠할지 상상할 수 없다.

9년 전 공식 재건된 서북청년단의 전국조직 총회가 금년 11월 중에 개최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선언한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가 남한출신 3인의 주도로 재건이 진행되었으며, 그해 11월 28일에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재건총회를 개최하여 과거 서북청년회 경남지부 선전부장을 역임하셨던 故 손 진 선생님을 제3대 총재로 모시며 공식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재건 노선에 갈등이 있어 전국조직 재건이 중단되었으나, 재건총회에서 공식 임명된 구국결사대장(정함철)에 의해 재건 서북청년단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금년 6월 14일에 합류한 탈북인단체총연합 한창권 회장을 단장으로, 그리고 과거 서북청년단의 마지막 꽃으로 피다가 진 최초의 북파 호림부대 김관국(서북청년단원이자 호림부대원이셨던 김관수 님의 친동생) 유족회장님을 제4대 총재로 모시고 전국조직 총회를 개최합니다.

서북청년단의 정통성을 이을 탈북민 출신 한창권 단장의 합류로 실향민 대표와 탈북민 대표, 그리고 남한출신의 대표 3인이 모여 서북청년단 전국조직 재건에 박차를 가하며, 오늘 이후로 개최되는 모든 탈북민 단체활동에 서북청년단이 함께합니다.

서북청년단 전국조직 재건에 자유를 찾아 탈북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한 모든 탈북민들과 유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밀알이 되신 서북청년단 선배님들의 고결한 명예를 회복하고, 일제시대보다 더욱 참담한 민족의 반역자 공산전체주의 김일성 3대 세습체제의 폭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북녘동포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자유평화통일의 선봉대로 함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재건된 서북청년단은 실향민 후손들과 탈북민 그리고 남한의 자유애국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2023.10.06.

※ 문의 : 서북청년단 사무총장 정함철 010-4379-1051

우리의 발자취, 대통령



신익희 조병옥 장면

9월 18일
당대표

신익희 "못살겠다, 갈아보자"
3대 (1956년) 대선출마

박순천

7월 18일
당대표

박순

6월
당대

이후
해산